안용주 선교사 가정 2026년 7, 8월 선교편지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사 35장6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물로 인해서, 가시 덤불만 있던 갈릴리 교회에 파릇 파릇 생명력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우물을 통해 교회와 마을에 농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 되는 것과 갈릴리교회의 자립에 중요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귀한 식사가 되는 여러 콩들과 옥수수 그리고 '스피니치'와 이 곳 분들이 좋아하는 '수쿠마 위키'라는 작물을 심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돕는다 하면서 겨우 물이나 뿌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모아온 비료로 쓰일, 이젠 귀한 염소 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귀하게 자라게 하시고 갈릴리 교회에 생명력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위 두 사진으로 전후가 비교 되는 것처럼 갈릴리 교회 건물 내벽의 마감을 마치고 깨끗하게 페인트칠도 했습니다.




위 두 사진 처럼, 초기에 4-5명이던 어린이 찬양팀도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사진의 예배 공간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영혼과 육신이 날로 깨끗하고 거룩하여 지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물이 교회에 생기며 가까운 곳에서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당나귀가 없는 어려운 가정들은 아이들이 직접 물을 길러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마음 껏 놀고 배움에 집중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문하여 섬겨주신, 단기선교팀의 심방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교회를 떠났던, 다비다가 단기선교팀의 가정 심방 때 축복 기도를 받고, 딸 '무떼우'를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함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와 무떼우의 삶을 축복하시고 오른 팔로 지켜 보호하시길 기도합니다.




갈릴리 교회를 오가는 길에 계속해서 비스켓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갈릴리 산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루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 주심을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A지역의 경찰서 내에 개척한 B교회 C 목사님 부부를 갈릴리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B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긴장 가운데 있는 B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벧엘 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함께 모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완공하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벧엘교회는 이제 1년여 된 교회여서 대부분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셨다가 끝나면 바로 가십니다. 그 가운데 예배 1-2시간 전부터 와서 바닥을 쓸고 의자를 닦으며 예배를 귀히 준비하는 '다비다 할머니'와 12살 '란디'의 모습(둘이 가족은 아닙니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십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 교회 우물 물이 2주간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심어 놓은 농작물이 말라가 걱정이었으나, 많은 구름으로 태양열 판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잘 해결을 했습니다. 벧엘 교회에는 교회 마바티(양철) 외벽을 부수고 플라스틱 탁자를 두 개 훔쳐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벽을 고치고 교회 물품들을 안전하게 수납할 창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2년간 저희 부부가 다녔던 선교사 언어학교의 마지막 시험을 98점의 우수한(?)성적으로 마쳤습니다. 물론 매주 스와힐리 설교를 위해서 설교문 수정을 위해 선생님을 한번씩 만나야 하지만 이제 더욱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 껏 스와힐리어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리앤트리 리뉴를 위해서 미국에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케냐에 돌아오기 전에 아이 중 한 명이 잠시 우는 시간이 있었으나, 케냐에 와 금새 잘 적응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 유진이의 모습입니다. 엄마가 카메룬 출신의 마엘과 파키스탄 출신의 사마라가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진 아진 유진 한 명 한 명 마음 속 깊이 만나주시길,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잘 전하여 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갈릴리 교회의 우물을 통한 농작 사역과 건물 외관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벧엘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B 교회의 안전과 새로운 교회 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4. 가족 모두의 영적, 육적인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